

## 청소년의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 및 재정만족도

홍 은 실\*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있어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가 합리적인 소비행동(계획소비)과 비합리적인 소비행동(과시소비, 충동소비, 과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의 재정적 태도를 제시하고, 과시소비나 충동소비, 과소비와 같은 청소년기에 문제가 되는 소비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2004년 9~10월 광주광역시 소재 D, M중학교와 S, D고등학교, C대학과 J대학, G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25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SA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자신의 재정에 대해 중간정도 이상의 태도를 보였고, 4가지 소비행동 모두 중간점수 3미만의 점수를 보였다. 재정만족도는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과 소비에 대한 만족이었으며, 저축액수에 대한 만족점수는 가장 낮았다.

둘째, 중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이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계획적 소비행동을 많이 하였다. 여학생이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과거대비 재정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타인대비 재정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과시소비를 많이 하였다. 학년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타인대비 재정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충동적 소비경향이 높았다.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이,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과거대비 재정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타인대비 재정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과소비행동을 많이 하였다.

셋째, 학년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계획적 소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과시소비행동을 적게 할수록 과소비를 적게 할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